

“코로나에 지친 심신 야구로 위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3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 오늘 개방 ... 전체 10% 2050명 입장 프로야구 개막 92일 만에 ... KIA, 홈 팬 응원 열기 속 4위 탈환 노력

‘야구 도시’ 광주의 ‘진짜 시즌’이 시작된다.

4일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개방된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 관중이 입장하면 KBO리그 10개 구단의 관중석이 모두 열리게 된다. 지난 5월 5일 KBO리그가 개막한지 92일만이다. <관련 기사 2·6·20·22면>

챔피언스필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이 허용되면서 2050석이 관중으로 채워지게 된다.

KBO리그는 지난 5월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2020시즌 대장정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딛고 ‘희망의 그라운드’를 연 KBO는 지난 7월 26일 또 다른 역사의 순간을 맞았다. 이날 고요하던 야구장에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작했다. 잠실(LG-두산), 고척(롯데-기아), 수원(NC-KT) 구장에 시즌 첫 관중이 입장하면서 길었던 ‘무관중 시대’가 끝났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은 여전히 고요했다. ‘대전별’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광주에 7월 2일부터 29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탓이다. 그리고 다시 2단계 조치가 4일 연장되면서 광주 야구팬들의 기다림도 길어졌다. 마침내 3일 광주시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면서 챔피언스필드 관중석도 열리게 됐다.

챔피언스필드는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KIA는 일찍부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관중 입장에 대

비했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무관중 기간 팀이 기록한 득점 수에 맞춰 사인볼을 적립, 4일 선착순 증정할 예정이다.

육성응원이 금지된 만큼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응원 수건도 제작했다. KIA는 주중 LG전에 이어 주말 NC전까지 진행되는 홈 6연전 기간 모든 입장객에게 무료로 응원 수건을 선물할 계획이다.

홈팬들의 응원으로 새로운 한 주를 여는 KIA는 중요한 홈 6연전을 소화한다. 4일부터 LG를 상대하는 KIA는 7일에는 NC와 만나게 된다. KIA는 주중 3연전을 통해 4위 탈환을 노린다. 지난주 1승 3패에 그친 KIA는 4위 LG와 한 경기 차로 5위에 머물러 있다.

주말에는 NC전 강세 잇기에 도전한다. KIA는 선두 독주 중인 NC에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상대전적에서 앞서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의대 정원 연 1500명씩 30년 늘려야 적정 수준 의료인력 확보할 수 있다”

국회서 전남 동부권 의원 토론회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1500명씩, 오는 2050년까지 30년간 늘려야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의과대학 설립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외상·의과 학자·취약지 보건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해소를 위해선 시·도별 부족 인력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필수 의료 분야에서만 모두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기사 5면>

3일 오후 국회에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주관하고 김승남·김희재·주철현 등 전남 동부권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는 ‘코로나 19시대의 의사 인력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00당 의사수가 3.08명일 때 한국은 1.85명(격차 1.23명)이었고, 2017년 OECD(1000명당 의사 수)가 3.42명으로 늘 때 한국은 2.34명(1.08명)으로 늘었다”며 “OECD와 격차가 지난 10년간 0.15명 감소했는데, 이 추세를 보면 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72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의료이용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하면 2050년까지(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 늘려야 적정 공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향후 30년간 모두 4만 5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당정이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 주장이다.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별개로 국내 의료 인력 규모가 OECD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어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2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감염병 분야, 외상, 의과학자, 취약지 보건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최소 4500~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향후 10년간 9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시·도별 필수 의료 분야 부족 인력만큼 지역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료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 추가 정원 배정하고,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 <2> 김부겸 후보

“비교우위 분야 전략산업 유치·육성 필요 인권위 광주로 이전, 아시아 인권도시로”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3일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주·전남의 경우 공공기관 시즌2의 성공을 위해 ‘비교우위’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 지역은 모두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 비교우위에 입각한 고도의 집약적,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전략의 요체다”고 밝혔다.

또 “광주라면 누구나 인권을 떠올린다. 우리나라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인권위다. 인권위 같은 기관이 광주로 이전하여 세계적 차원의 인권 보호,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면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인권의 중심도시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광역경제권에 대한 큰 그림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생명 분야 등 관련 혁신 산업 특화를 통해 광주·전남이 광역경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평신도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공공시설 한 달만에 재개장 ▶6면

굿모닝 예향 - 전남의 섬 ▶18·19면

KIA 타이거즈, LG·NC와 홈 6연전 ▶22면

층층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층층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